



08-36 (통권 214호)
2008.09.12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미국 국채 모기지업체 공적자금 투입
- 취업자 증가수 저조 지속

경영 노트

- CEO들이 피해야 할 경영전략

사회 트렌드

- 보케베케(vocation vacation)

차이나 리포트

- 천진(天津)항과 청도(靑島)항 비교

저널 브리프

- 기업홍보 1등 공신 '블로그 비즈니스' 뜬다

洗心錄

- 중석몰축(中石沒鏹)

□ 미국 국책 모기지업체 공적자금 투입

-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는 양대 국책모기지 업체인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에 대한 정부구체금융 투입됨
 - 미국 정부는 9월 7일에 두 국책 모기지 기관의 선순위 우선주 매입 등을 위해 초대 2,000억 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의 투입을 결정
 - 양대 기관이 보증한 무담보채권 총액은 1조 5,914억 달러로 이들 기관의 자기자본금인 810억 달러에 비해 20배나 커서 자기자본의 부족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 또한, 2008년 2/4분기에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실적이 각각 23억 달러와 8.2억 달러로 나타남으로써 이들 기관의 유동성 위기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이 매입한 이들 기관의 채권은 대부분 선순위채로 원리금의 할인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취업자 증가수 저조 지속

- 통계청(9월 10일)에 따르면 8월 중 취업자 증가수는 전년동월대비 15만 9,000명으로 6개월 이상 20만명 미만의 증가를 보임
 - 8월 현재 취업자수는 2,361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7% 증가에 그쳐, 2008년 6월과 7월의 0.6%를 제외하면 2007년 6월 이래 가장 저조한 증가율 수치를 보임
 - 취업자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는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음식숙박업,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에서는 감소하였음
 - 8월 실업자는 76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1.0%)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변동이 없었음
-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1,527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25만 9,000명) 증가하였고, 구직단념자는 11만 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 2.8%(3,000명) 감소함

□ CEO들이 피해야 할 경영전략

- 경쟁의 글로벌화에다가 위기 대응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영실패가 급증
 - Harvard Business Review(2008.9)는 경영실패의 원인으로 실행단계에서의 실수보다는 애초 잘못된 전략 수립을 지적
 - 이에 미국 비즈니스 실패 사례 750건을 분석해 CEO들이 피해야 할 위험한 전략 유형을 도출

■ 실패전략 유형

전 략	사 례
1. '시너지'라는 신기루 쫓기	1999년 신체장애 보험회사 유넴과 프로비던트가 합병했으나, 양사의 판매채널과 영업 방식의 차이로 2007년 다시 분리
2. 공격적인 금융 기법 활용	1990년대 그린트리파이낸셜은 이동식 주택에 대해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했지만 주택가치가 매년 급락하면서 회사는 2001년 파산
3. 변화거부·기존 전략 고수	이스트먼 코닥은 디지털카메라의 공격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지난 10년간 주가가 75%나 하락
4. 모양만 그럴싸한 인접사업 진출	143년 역사를 지닌 철강업체인 'Oglebay Norton'는 신사업을 찾던 중 제철에 필요한 석회석 사업에 참여했다가 사업지식 부족과 많은 부채(\$440million) 누적으로 2004년 파산
5. 시장성 없는 첨단기술 개발	1990년대 모토로라는 벽돌 크기의 전화기에 3,000달러의 가입비를 내야 하는 '이리듐'이란 위성전화 프로젝트를 추진을 고집하다 실패
6. 능력 이상으로 몸집불리기	유통업체인 에임스 백화점은 월마트와의 경쟁을 위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인수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 부었다가 결국 파산

자료 : HBR(September 2008)

- 자사의 핵심기반 및 경영관리 수준을 벗어난 전략 전개는 실패 가능성이 큼
 - 자사의 강점부문을 정확히 파악하고, IT 기반의 실시간 시장동향 및 성과 모니터링을 구축해 민첩하면서도 적절한 전략 구사

□ 보케베케(vocation vacation)

- 보케베케(vocation-vacation)란 천직을 의미하는 ‘보케이션’(vocation)과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vacation)이 결합된 말로, ‘천직을 찾아 떠나는 휴가’를 뜻함

- 한마디로 휴가를 통해 자신이 그리던 직장을 체험해 보는 것임
- 최근 SBS 스페셜 ‘천직 찾아 휴가가요’란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면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킴

- 휴가(vacation) 동안, 당신이 평생 꿈꿔왔던 직업(vacation)을 체험해 보세요!

- 2003년 미국에서 문을 연 한 사이트(www.vocationvacations.com)의 홍보 문구로서, 이직을 꿈꾸는 직장인들의 휴가를 활용해 평생 꿈꿔온 직업을 멘토와 함께 체험해보는 이색적인 직업체험상품임
- 선택가능한 ‘체험’은 와인 소믈리에부터 신발 디자이너, 목장 주인 등 무려 200여 종에 이른다고 함
- 맥주와 치즈 기술자, 스포츠 아나운서 등이 선호도가 높은 직종임
- 600~2000달러를 지불한 참가자들은 1~3일간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멘토’와 함께 일하며, 적성검사와 상담도 받을 수 있음
- 흥미로운 점은 이런 체험을 한 이들의 75%가 자신의 열정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깨닫고 원래 일터로 돌아간다는 것임

- 이 사이트는 사장 브라이언 쿠르트 자신이 이직을 꿈꾸다 만들어낸 산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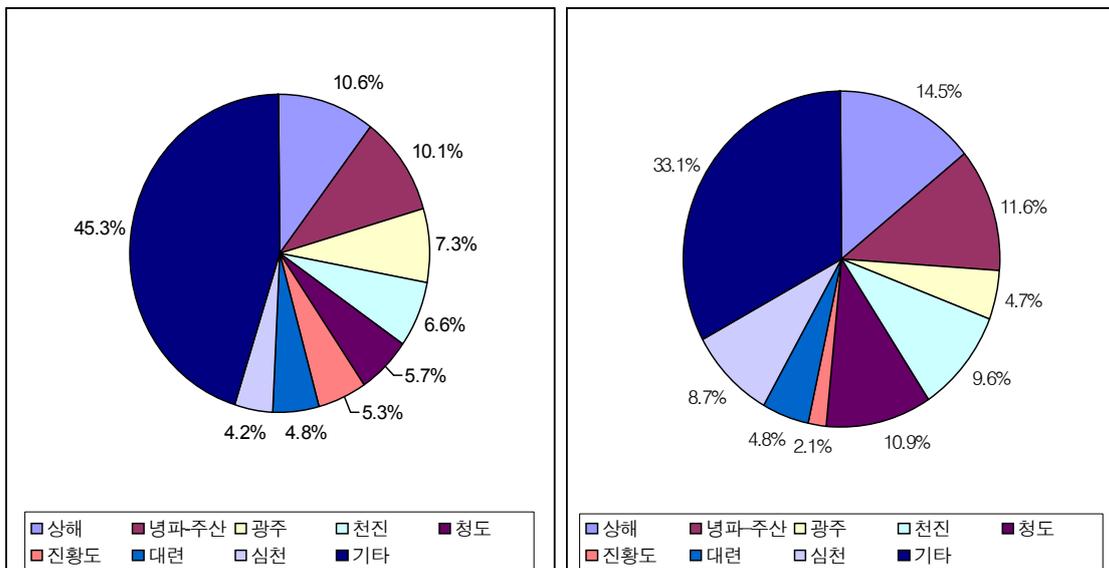
- 1990년대 후반 실업자가 된 그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며 일자리를 찾다가 재미있는 현상을 포착했음
- 사회적으로 성공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불편해하고 있었고, 기회를 주면 많은 이들은 ‘지금 나는 변호사지만, 사실은 다른 어떤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하는 식이었다는 것임
- 평생 꿈꿔온 이직을 위해 그 동안 일궈온 경력을 버린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냉철하게 이직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것이 프로그램의 최대 이점임

□ 천진(天津)항과 청도(靑島)항 비교

■ (개요) 중국 경제의 중심이 주강삼각주(광저우, 선전) → 장강삼각주(상하이, 항저우) → 환발해지역(톈진, 칭다오)으로 북상함에 따라 천진과 청도 항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음

- 천진(天津)과 청도(靑島) 항은 중국 북방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로 각각 중국 전체 해운 물동량의 6.6%와 5.7%를 차지하고 대외교역 물동량의 9.6%와 10.6%를 차지함
- 2007년 중국 전역의 해운 물동량은 16.0% 증가한 데 비해 천진과 청도항은 21.0%와 18.1% 증가하였으며, 대외교역 물동량은 21.6%와 13.1% 증가함

< 중국 주요 항구의 화물 처리 비중 >



자료 : 중국 교통부.

■ (천진과 청도항 비교) 천진항과 비교하여 청도항은 자연조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설이 우수한 반면, 배후단지의 경제규모와 내륙운송 네트워크 등 부문에서는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연 조건 : 청도항은 수심이 깊은 천연항인 반면, 천진항은 인공(人工)항으로 바닥에 토사가 퇴적되는 단점이 있음

- 배후단지 : 청도항 배후단지의 경제 규모는 3,400억 위안(51조 원)이고 천진항 배후단지의 경제 규모는 5,000억 위안(75조 원)에 달함
 - 하드웨어 : 청도항은 중국 최대의 컨테이너선, 원유, 철광석, 석탄과 곡물 부두로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은 1,300만 TEU에 달해 800만 TEU에 그친 천진항에 비해 우월함
 - 소프트웨어 : 청도항은 대륙에 인접한 항구 중 규모가 가장 큰 EDI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최첨단 부두관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천진항은 통합 전산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단점이 있음
 - 내륙운송 : 청도항은 내륙운송을 도로 위주의 교통망에 의존하지만, 천진항은 도로, 철도와 공항을 연결하는 복합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음
 - 규제정책 : 청도와 천진은 1980년대 말 동시에 개방도시로 지정되어 정책적 혜택이 집중되어 있으며, 천진항은 2006년부터 보세항(保税港)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국에서 개방정도가 가장 높은 항구가 됨
- (시사점) 중국 천진과 청도 항은 한국과 거리가 가깝고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성화된 곳으로 한국 기업들이 항만 건설과 배후단지 조성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천진항과 청도항은 인천항에서 각각 847km와 590km 떨어져 있어 중국 연안의 여타 항구에 비해 거리가 가까운 장점이 있음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천진항에 대해서는 항만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배후단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청도항에 대해서는 인근 공단지역 조성에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임

□ 기업홍보 1등 공신 ‘블로그 비즈니스’ 뜬다*

- (배경) ‘2004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블로그’는 이제 개인 홈페이지를 넘어 기업의 중심까지 침투하여 기업들의 홍보 역할까지 수행
 - 블로그는 인터넷을 뜻하는 웹(web)에 기록을 뜻하는 로그(log)를 합성한 ‘상호 작용성을 강화한 개인 홈페이지’를 말함
 - 입에서 입을 타고 인터넷 상에 퍼져가는 블로그와 블로거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자연스레 기업들의 ‘블로그 마케팅’도 활성화됨
- (사례) ‘블로그 마케팅’ 활성화 요인
 - 최근에는 ‘블로그 마케팅’의 활성화로 ‘기업 블로그’(Business Blog)라는 용어 탄생
 - 블로그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행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고객과 시장의 트렌드를 읽기 위한 ‘마켓 센싱’(Market sensing)의 역할을 함

< 블로그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 >

이름	내용
1인 미디어	누구라도 콘텐츠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신할 수 있는 개인 방송국
타잔의 포효	영향력 있는 개인(타잔)의 의견이 발산되면 단시간 내에 네트워크 전체(정글)가 들썩이기 시작
말 없는 천리마	블로그에서는 하나의 정보가 뜨면 30분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음
생각의 족보	게시물에 대한 참조 목록과 의견교환 내역이 블로그 내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생각의 발전과정 추적가능
지식의 은행	내가 올린 지식이 ‘1’이라면 지식에 이자가 붙어 ‘2’나 ‘3’이 되어 돌아옴

- (시사점) 정보화 시대에 ‘블로그’를 잘 사용하면 약이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음
 - ‘블로그’를 기업홍보의 일등공신으로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블로그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한 활용 전략과 꾸준한 관심이 요구됨

* 이 글은 『Economic Review』 (2008.09.09)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중석몰촉(中石沒鏃)

‘중석몰촉’은 쏜 화살이 돌에 깊이 박혔다는 뜻으로 정신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한(前漢)시대에 이광(李廣)이라는 장수는 신궁으로 유명하였다. 어느 날 그는 어스름한 달빛 아래를 지나다가 몸을 웅크리고 자신을 덮치려는 호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위기의 순간 일발필살(一發必殺)의 정신으로 활을 당겼다. 화살은 그대로 명중했다. 그런데 화살을 맞은 호랑이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화살이 깊이 박혀 있는 호랑이 형상의 큰 바위였다. 그는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활을 쏘아 보았지만 화살은 돌에 박히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 고전 『사기(史記)』의 「이장군열전(李將軍列傳)」에서 전하는 말이다.

최근 인수·합병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한 일부 대기업들에 비관적인 기대가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기업 환경의 변화를 너무 쉽게 보고 무리한 차입을 통해 기업의 규모를 확대한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복합경쟁 환경 아래서 능동적인 선택이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시장은 향후 이들 기업들의 행보를 냉정히 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외 경제 여건은 호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 이외에 기업 경영환경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요소들을 찾기 어렵다.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에 대해 돌아볼 시기인 것 같다. 기업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중석몰촉’의 정신이 요구된다. 오늘날 있을 뿐 내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좋은 친구와 좋은 책, 그리고 살아있는 양심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생활이다.”**

- 마크 트웨인(1835~1910) : 미국 소설가